

37년 숨겨왔던 신안선 도굴 유물 57점 회수

경찰·문화재청, 불법 보관해온 60대 검거...일본 반출 시도 청자·백자·흑유자 등 모두 중국산...학술·역사적 가치 높아



13일 문화재청 관계자가 도굴된 지 30여년 만에 회수한 '신안선' 유물을 살펴보고 있다. 문화재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980년대 '신안 해저유물매장해역'에서 도굴된 도자기를 불법 보관해온 60대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중발굴유적 '신안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50여점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해당 유물을 도굴해 30년 이상 집 안에 불법 보관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문화재청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브리핑을 열어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앞 신안해저유물매장해역(사적 제274호)에서 도굴한 중국 도자기 57점을 1983년부터 숨겨 보관한 혐의(매장문화재법 위반)로 A(63)씨를 검거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경찰은 또 A씨로부터 회수한 유물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A씨가 도굴된 해저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 A씨가 실제 일본을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검거 전에 예상 은닉장소를 미리 파악했다. 지난 3월 20일 A 씨를 체포하는 한편 경기도 자택과 서울 친척 집 등에서 중국 청자 등 도자기 57점을 회수했다.

조사 결과 중국 공항 검색이 까다로워 반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일본으로 도자기 7점을 두 차례 들고 가 브로커에게 구매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도자기 판매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안선 유물이 아니라 어머니 유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회수 유물들이 '신안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은 "이번에 회수한 도자기는 신안선에서 나온 도자기들과 형태나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며 "피의자가 '신안선 발굴 유물'이라고 언급하며 팔아넘기려 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상진 단속반장에 따르면 A씨는 1980년대 잠수부를 고용해 해당 문화재를 도굴했으며, 판매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감상용으로 보관하던 중 최근 생활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유물은 모두 중국산 도자기로, 저장성 용천요(龍泉窯)에서 만든 청자 46점, 푸젠성에서 생산한 백자 5점, 장시성 경덕진요(景德鎮窯)에서 제작한 백자 3점, 검은 유약을 바른 흑유자(黑釉瓷) 3점이다.

심지연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중국 최대 청자 생산지였던 용천요 도자기는 13~14세기 아프리카까지 수출될 정도로 고급품이었다"며 "회수 유물 대부분은 가마에서 막 꺼낸 것처럼 보존 상태가 좋아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유물을 국가 재산으로 귀속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할 예정이다. 관리주체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 등이 꼽히고 있다.

한편,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길이 28.4m·너비 6.6m, 200t급)은 1323년 중국 저장성 Ningbo지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로 향하던 중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11차례에 걸친 발굴 결과 도자기 등 유물 2만 4000여점과 28에 달하는 동전 800만개 등이 확인됐다. /김홍희 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녘** 16:37 **달뜨기** 19:48 **달지기** 03:07

흐린하늘
낮부터 흐려져 낮애안 일부지역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은뒤 흐림	18/26	보성	흐리고 가끔비	15/25
목포	맑은뒤 흐림	19/25	순천	흐리고 한때비	17/26
여수	흐리고 한때비	19/24	영광	구름많음	16/25
나주	맑은뒤 흐림	17/26	진도	흐리고 한때비	17/24
완도	흐리고 가끔비	18/25	전주	구름많음	18/26
구례	맑은뒤 흐림	16/26	군산	구름많음	17/25
강진	흐리고 가끔비	18/25	남원	구름많음	16/25
해남	흐리고 한때비	17/25	축산도	맑은뒤 흐림	17/22
장성	구름많음	16/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면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 경고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55	11:43
여수	간조	만조
	00:35	06:40
	12:47	19:29

◇ 주간 날씨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	☀	☁	☁	☁	☀	☀
17/26	17/28	18/28	19/29	19/28	20/28	20/29

광주대동고 친일 교가 교체 동문 등 참석 새 교가 발표회

'불수능' 때문에...광주 재수생 크게 늘었다

광주대동고등학교도 친일 작곡가가 만든 기존 교가를 교체했다.

13일 광주대동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교내 시청각실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가 발표회'를 열었다. 새롭게 발표된 교가는 허길재 국립합창단 전임 작곡가가 작곡했으며, 공모와 편곡 작업을 거쳐 완성됐다.

대동고는 올해 초 기존 교가 작곡가가 친일 음악가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테스크포스(TF팀)를 꾸려 4개월간 교가 교체 작업을 추진해왔다. 정철원 교장은 "새로운 교가는 밝고 경쾌한 행진곡 풍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성과 애국애족의 의지, 지역 정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친일잔재 교가를 교체한 학교는 광덕중·고에 이어 대동고가 두 번째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학 진학율 0.5% 줄고 재수 1.3% 늘어...남구 가장 높아

'불수능' 탓이었을까. 지난해 대학능력 시험을 치렀던 당시 광주지역 고3 수험생들 가운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한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남구지역은 광주에서 재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고난도를 보였던 작년 수능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워지자 재수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학교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외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비율은 83.6%였다. 이는 전년 84.1%에 견줘 0.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고교 졸업 후 취업한 학생도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3%로 파악됐다.

반면 대학입시에 제도전환은 재수생이 포함된 '기타'로 분류된 학생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15.6%를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4.4%, 14.3%를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불수능' 이후 유독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진학률은 북구가 8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산구 83.9%, 서구 83.5%, 동구 82%, 남구 78.8% 순이었다. 북구와 가장 낮은 남구는 9.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특히 광주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남구는 광주에서 진학률이 가장 낮으면서 동시에 재수생을 포함한 기타로 분류된 학생 비율은 최고 수준이었다. 남구의 기타 비율은 19.7%로 5개 자치구 평균인

15.1%를 훌쩍 뛰어넘었다.

교육열이 높은 남구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재수생 비율이 증가한 데는 어려웠던 수능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19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의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은 5.30%로, 전년(10.0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수시에서 영어영역 최저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해 '낙방'하는 등 당시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는 "지난해 입시 시즌 당시 수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오자 고민 끝에 재수를 택한 학생들이 꽤 있었다"며 "재수생이 포함된 기타 비율이 증가한 원인이 '불수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등 4개 과학기술원 공동 입학설명회

내일 GIST 오톨관 다산홀서

GIST(지스트)를 포함한 4개 과학기술원이 오는 15일 공동 입학설명회를 GIST 오톨관 2층 다산홀에서 개최한다. 과학기술원 공동 입학설명회는 GIST, KAIST, DGIST, UNIST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 입학설명회로, 지난 1일 대전에서 순회로 개최했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등록을 시작해 2시에 개회식을 갖고, 4개 대학의 202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안내와 학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각 대학별로 상담실을 마련해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입학설명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공계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에게는 각 대학별 전형안내 책자가 제공된다. /채희중 기자 chae@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 배수로 표식판 설치

광주시 남구가 상습 침수구역인 백운광장 주변과 주월동 일대에 대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의 하나로 배수로(빗물받이) 표식판 설치에 나섰다. 남구는 "대남대로 일대 80곳과 명성아파트 주변 250곳에 팻말형과 건물 부착용 배수로 표식판을 각각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배수로 표식판 설치 배경은 주기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덮개 위에 장

판을 설치해 빗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각종 쓰레기 등으로 인해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중 호우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 흉물물에 가려 배수로 위치 파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배수로 표식판은 가로 25cm·세로 15cm 크기로 제작되며,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를 사용해 눈에 잘 띄게 했다. /김홍희 기자 kimyh@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능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